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안소현 (安昭沄)*

이승연 (李承燕)**

이 슬 (李 슬)***

안지현 (安智賢)****

안제원 (安濟元)*****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를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 2, 3학년 학생 520명의 또래지명 및 자기보고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가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뿐만 아니라, 지각된 인기도가 순차적으로 부적응적 자기애와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쳐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애의 단일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높은 또래지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성격 및 인지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지시적 개입 (indicated intervention)뿐 아니라 또래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개입 (universal intervention)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또래괴롭힘,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중학생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박통합과정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I. 서론

최근 학교장면에서의 또래괴롭힘(bullying)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과 함께, 그 형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래괴롭힘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공격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Rigby, 2002), 가해자-피해자의 이자관계 보다는 집단역동의 측면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Salmivalli, Lagerspetz, Bjorkqvist, Osterman & Kaukianinen, 1996). 즉, 가해자는 사회적 힘과 지배력을 얻기 위해 공격성을 도구로 사용하며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의 행동은 이러한 가해행위를 강화하거나 억제하게 된다(Caravita, Gini, & Pozzoli, 2012). 지금까지 또래괴롭힘 예방/개입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또래괴롭힘의 본질을 간과했기 때문일 수 있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아동·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을 또래집단이라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설명해 왔는데,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은 집단 내에서 또래로부터 '거부된(rejected)' 청소년들이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로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Coie, Terry, Lenox & Lochman, 1995; Ialongo, Vaden-Kiernan & Kellam, 1998). 그러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집단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면서(Parkhurst & Hopmeyer, 1998; Rodkin, Farmer, Pearl, & Van Acker, 2000), 높은 사회적 지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김동현, 이규미, 2010; 이승연, 2011; Cillessen & Mayeux, 2004; Cillessen & Rose, 2005), 최근에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또래괴롭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심희옥, 2008; Caravita & Cillessen, 2012; Caravita et al., 2012; De Bruyn, Cillessen & Wissink, 2010; Dijkstra, Lindenberg, & Veenstra, 2008).

일반적으로 또래집단 내 지위는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와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로 구분된다(Parkhurst & Hopmeyer, 1998; Prinstein & Cillessen, 2003). 이들은 서로 중간 정도의 상관(예, $r=.60$ in Puckett, Aikins & Cillessen, 2008; $r=.44$ in Sijtsema, Veenstra, Lindenberg, & Salmivalli, 2009)을 보이지만, 행동특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친사회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공격적 행동 수준은 낮은 반면(Rubin, Bukowski, Parker & Damon, 1998; Sandstrom & Cillessen, 2006),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친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공격성도 높은 양가적 행동특성을 보일 수 있는데 또래 집단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또래들이 반드시 좋아하지는 않는다(Cillessen & Rose, 2005; Gorman, Kim & Schimmelbusch, 2002; Sandstrom & Cillessen, 2006). 이러한 차이는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에서도 관찰되는데, 13~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De Bruyn 등(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선호도는 또래괴롭힘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했으며,

지각된 인기도는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또래를 괴롭힌다면, 주변 또래들에게 괴롭힘 행동이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또래괴롭힘이 '집단 내 지위 획득'을 위한 성공적 수단으로 보이게 되면서(Dijkstra et al., 2008), 또래들은 이들의 괴롭힘 행동을 모방하거나(Cohen & Prinstein, 2006) 묵인할 수 있게 된다(Salmivalli & Voeten, 2004). 따라서 청소년기 초기의 또래괴롭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보이는 괴롭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그 구체적 기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적 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연구들(Cillessen & Mayeux, 2004; Sandstrom & Cillessen, 2006)은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일반적임을 보고하였다. 10~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illessen과 Mayeux(2004)의 연구에서, 지각된 인기도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를 예측하였으며, Sandstrom과 Cillessen(2006)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사회적 선호도와 지각된 인기도가 모두 높았던 아동은 사회적 선호도만 높았던 아동과는 달리, 중학교 2학년 때 공격성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또래집단 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내적 또는 외적 압력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위 '권력의 타락(power corrupts)'(Kipnis, 1972; Sandstrom & Cillessen, 2006에서 재인용)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즉, 낮은 지위에 있는 또래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이들을 교묘하게 조정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소위 마키아벨리적 행동을 보인다(Hawley, 2003). 또래집단 내에서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과 함께, 공격적 행동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이승연, 2011; Salmivalli & Peets, 2009).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칭찬, 복종, 사회적 지지 등의 형태로 또래들로부터 상당한 강화를 받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과 특권의식 등을 더 많이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기애적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Cillessen & Rose, 2005; Rose, Swenson & Waller, 2004; Salmivalli, 2001). 실제로 또래괴롭힘 가해자 주변에는 괴롭힘을 옆에서 돕거나 부추기는 친가해적 성향의 또래들과 괴롭힘 상황을 아예 무시하는 수동적 방관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행동은 가해행위를 지지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을 계속 강화하게 된다(Salmivalli & Voeten, 2004). 이러한 과정에서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윤현해, 김희화, 김경연, 2010).

자기애(narcissism)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자기 과시, 특권의식과 대인관계에서의 착취성, 우월성, 허영성,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성

격 특성이다(Raskin & Terry, 1988). Aalsma, Lapsley와 Flannery(2006)는 청소년기 초기의 학생 집단에서 자기에와 외현화 행동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며, 이세연, 유미숙(2010)의 고등학교 연구에서는 자기에 수준이 높은 집단이 공격성이 유의하게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에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주로 상관이나 분산분석에 의존하였으며, 자기에가 공격성, 특히 또래괴롭힘 행동에 어떤 기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윤현해 등(201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자기애적 특성이 완전매개함을 밝혔다. 즉, 지각된 인기도가 높을수록 자기에 성향이 높아지고, 강화된 자기에가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기제를 설명하긴 했지만, 자기에 측정 시 전반적 자기애를 사용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자기애는 다차원적 특성으로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Barry, Frick, & Killian, 2003; Raskin & Terry 1988), Barry 등(2003)의 연구에서 자기애의 부적응적 측면으로 여겨지는 노출성, 착취성, 특권의식 하위요인만이 품행장애나 냉담-무정서(callous-unemotional) 특성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된 인기도, 자기에,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자기애보다는 자기애의 부적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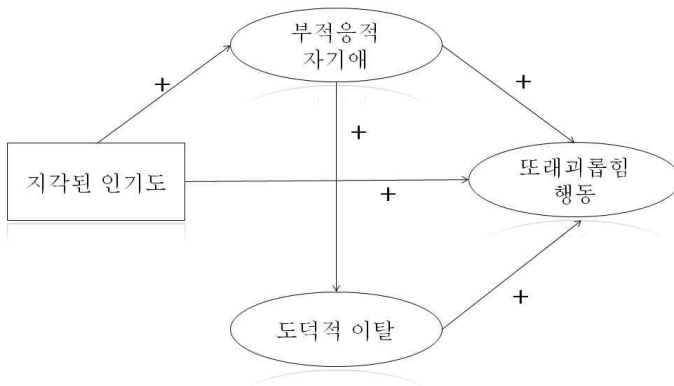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Ang, Ong, Lim과 Lim(2010)은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착취성향에만 초점을 두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에에서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연결되는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Ang 등(2010)은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신념'이 자기애적 착취성향에서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부분매개 함을 밝혔으며, 착취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또래괴롭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또래괴롭힘에 대한 정당화'는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 표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일어날 수 있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등 자기처벌적 정서(Bandura, Barbarabelli, Caprara, & Pastorelli, 1996)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유해한 행동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인지적 왜곡과정을 거치게 된다(Bandura, 2002). Gini(2006)는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중 가해자들이 사회인지(마음읽기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도덕적 이탈 수준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또래괴롭힘 가해자들이 마키아벨리적 행동을 하게 하는 인지적 기제로서 도덕적 이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경희, 이승연(2010)의 연구에서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보다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각된 인기도와 도덕적 이탈 간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Caravita

등(2012)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와 도덕적 이탈의 상관은 매우 낮았으나($r=.14$, $p<.05$),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경우에만 도덕적 이탈과 또래괴롭힘 행동의 정적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나 지각된 인기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는 지각된 인기도에서 도덕적 이탈로 가는 직접 경로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지각된 인기도가 부적응적 자기애와 도덕적 이탈을 거쳐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의 검증은 목표로 하였다(그림 1).

청소년기 초기는 또래들에게 수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며(Caldwell, Rudolph, Troop & Kim, 2004), 또래괴롭힘이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LaFontana & Cillessen, 2010),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해 왔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괴롭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이들의 가해행동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 간 관계에서 성차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성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구조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림 1] 연구모형

II. 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 2, 3학년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2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246명(47.3%), 여학생 274명(52.7%)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13.73세($SD=.66$)였다.

2. 절차

자료 수집은 2012년 6~7월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담임교사와 학교의 사전 허가를 받고 연구자가 담임교사들에게 실시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달한 후, 각 반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측정도구들의 제시 순서를 달리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는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에 의한 불성실한 응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3. 측정도구

1) 지각된 인기도

학급 내 지각된 인기도와 사회적 선호도를 구분하기 위해 두 가지 또래지위를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또래지명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liked most)”, “반에서 가장 싫어하는 친구(liked least)”,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most popular)” 그리고 “가장 인기 없는 친구(least popular)”에 대해 같은 학급에서 3명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학생들이 지각된 인기도 개념과 이성에 대한 호감을 혼동하지 않도록 Sijtsema 등(2009)의 방법대로 동성의 친구만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그 후 Puckett 등(2008)의 점수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학생별로 각 질문에 대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명 받은 수를 합산하고 학급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준화하였다. ‘가장 인기 있는’ 지명의 표준점수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지명의 표준점수를 뺀 값을 다시 학급 내에서 표준화하여 지각된 인기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남녀 합반인 경우, 학급 내에서 남녀를 구분하여 표준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인기 있다고 지각됨을 의미한다.

2) 부적응적 자기에

Raskin과 Hall(1979)이 비(非)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적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윤현해 등(201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권력, 노출성, 자기-충족감, 허영심, 우월감, 착취성, 특권의식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40문항이며, 제시된 두 문장 중 자신에게 더 가까운 문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윤현해 등(2010)은 척도 간 반응양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 척도의 자기에적 성격의 문장만을 선택하여 이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0: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에에 해당하는 노출성, 착취성, 특권의식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8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9~15세를 대상으로 한 Barry 등(2003)의 연구에서 노출성, 착취성, 특권의식 세 하위요인의 전체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alpha=.7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89$ (노출성 $\alpha=.81$, 착취성 $\alpha=.76$, 특권의식 $\alpha=.76$)로 나타났다.

3) 도덕적 이탈

Bandura 등(1996)이 개발한 도덕적 이탈 기제 척도(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MDS)를 서미정과 김경연(2006)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명명, 유리한 비교, 결과 무시, 피해자 비인간화, 비난에 대한 귀인, 책임감 대체, 책임감 분산의 8개 하위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미정과 김경연(2006)은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3문항을 제외하여 총 2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아주 많이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 범위는 29~14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하위요인 중 '책임감 대체(.39)'와 '책임감 분산(.12)'의 요인부하량이 낮아,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미정과 김경연(2006)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alpha=.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당화 $\alpha=.72$, 완곡한 명명 $\alpha=.56$, 유리한 비교 $\alpha=.83$, 결과 무시 $\alpha=.71$, 피해자의 비인간화 $\alpha=.78$, 비난에 대한 귀인 $\alpha=.55$ 로 나타났다.

4) 또래괴롭힘 행동

Samivalli 등(1996)이 고안한 참여자 역할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서미정(2008)이 자기보고식으로 수정한 척도 중에서 가해영역에 해당하는 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11회 이상)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 척도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해행동은 직접가해 행동과 간접가해 행동(Baldry, 2004)으로 나뉘기 때문에 두 가지 하위차원(BU1: 4문항, BU2: 3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오승은과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 가해행동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직접가해 .81, 간접가해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alpha=.78$ (직접가해 $\alpha=.71$, 간접가해 $\alpha=.57$)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SPSS 18.0을 사용하여 측정변인 대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지각된 인기도와 부적응적 자기에,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등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공분산구조분석에서 결측치가 있었기 때문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n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Sobel 검증과 다변량 델타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결과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단순상관

측정변수들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단순상관은 표 1과 같다. 단순상관분석결과, 모든 측정변수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지각된 인기도는 자기에의 하위요인과 $r=.15(p<.05)$ 에서 $.26(p<.0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또래괴롭힘 행동과도 $r=.16$, $r=.22(p<.0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지각된 인기도는 결과 무시($r=.18$, $p<.001$)를 제외하고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 상관 값이 .10 이하로 매우 낮아 지각된 인기도에서 도덕적 이탈로의 직접 경로의 가능성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적응적 자기에 하위요인과 또래괴롭힘 행동 간에는 착취성과 직접 가해행동만 제외하고는 $r=.14(p<.001)$ 에서 $.24(p<.001)$ 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도덕적 이탈의 각 하위요인과 또래괴롭힘 행동에서도 $r=.18(p<.001)$ 에서 $.36(p<.001)$ 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변수들이 단변량 수준에서 정상성을 충족시켰다.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단순상관분석 결과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지각된 인기도 | 1 | | | | | | | | | | | |
| 2. NA1_노출성 | .23*** | 1 | | | | | | | | | | |
| 3. NA2_취취성 | .26*** | .56*** | 1 | | | | | | | | | |
| 4. NA3_복권의식 | .15** | .61*** | .55*** | 1 | | | | | | | | |
| 5. MD1_도덕적정당화 | .08* | .26*** | .21*** | .31*** | 1 | | | | | | | |
| 6. MD2_완곡한 명명 | .09** | .19*** | .11** | .22*** | .44*** | 1 | | | | | | |
| 7. MD3_유리한 비교 | .07 | .17*** | .11** | .13** | .25*** | .42*** | 1 | | | | | |
| 8. MD4_결과 무시 | .18*** | .21*** | .21*** | .23*** | .34*** | .45*** | .44*** | 1 | | | | |
| 9. MD5_피해자비인간화 | .05 | .15** | .18*** | .23*** | .32*** | .39*** | .29*** | .37*** | 1 | | | |
| 10. MD6_비난에 대한 귀인 | .07* | .14** | .09** | .09** | .23*** | .39*** | .33*** | .44*** | .43*** | 1 | | |
| 11. BU1_직접 가해행동 | .22*** | .20*** | .06 | .14** | .26*** | .36*** | .24*** | .33*** | .24*** | .24*** | 1 | |
| 12. BU2_간접 가해행동 | .16*** | .24*** | .16*** | .19*** | .22*** | .32*** | .28*** | .27*** | .18*** | .23*** | .62*** | 1 |
| M | .03 | 16.24 | 14.26 | 17.94 | 11.94 | 4.57 | 5.54 | 7.50 | 8.72 | 5.85 | 8.07 | 3.25 |
| SD | .97 | 4.39 | 3.35 | 4.10 | 3.15 | 1.81 | 2.42 | 2.72 | 3.70 | 2.20 | 4.33 | 1.75 |
| 왜도 | -.19 | .01 | -.16 | -.19 | .12 | .53 | 1.98 | .90 | .62 | .75 | 1.02 | 1.02 |
| 첨도 | .20 | -.11 | -.18 | .30 | -.28 | -.11 | 6.71 | .65 | -.28 | .28 | .66 | .93 |

***p<.001, **p<.05, *p<.01, NA=부적응적 자기애, MD=도덕적 이탈, BU=또래괴롭힘 행동

2. 측정모형 검증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의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한 결과($\chi^2(41)=111.625$, $p<.001$, $CFI=.957$, $TLF=.942$, $RMSEA=.058$), 본 연구에서 제시한 11개의 측정변인으로 3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간의 모형 설정 및 적합도 분석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그리고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지각된 인기도에서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직접 경로, 부적응적 자기애를 거쳐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단순매개, 그리고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을 거쳐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이중 부분매개를 모두 포함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는 수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0)=136.374$, $p<.001$, $CFI=.949$, $TLF=.933$, $RMSEA=.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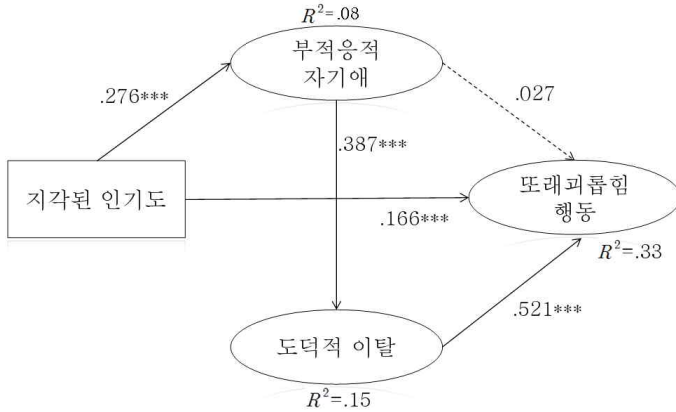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각된 인기도는 부적응적 자기애($\beta=.276$, $p<.001$), 또래괴롭힘 행동($\beta=.166$,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적응적 자기애는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eta=.387$, $p<.001$), 또래괴롭힘 행동으로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도덕적 이탈에서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했으며,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가는 직접 경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521$, $p<.001$).

4. 매개효과 검증

지각된 인기도가 부적응적 자기애를 통해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단순매개효과($Z=4.338$, $p<.05$)와 부적응적 자기애가 도덕적 이탈을 통해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매개효과($Z=5.134$, $p<.05$)를 Sobel 공식¹⁾을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한편, 다변량 델타방법(Multivariate Delta Method)²⁾을 사용하여 지각된 인기도가 부적응적 자기애와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거쳐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검증

1) $Z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하였을 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3.823, p<.05$).



*** $p<.001$, 실선: 유의한 경로,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2]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

| 경로 | 경로계수 | 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t |
|---------------------|------|-------|------|----------|
| 지각된 인기도 → 부적응적 자기애 | .985 | .276 | .172 | 5.732*** |
| 지각된 인기도 → 또래괴롭힘 행동 | .460 | .166 | .129 | 3.560*** |
| 부적응적 자기애 → 도덕적 이탈 | .206 | .387 | .031 | 6.698*** |
| 부적응적 자기애 → 또래괴롭힘 행동 | .021 | .027 | .045 | .459 |
| 도덕적 이탈 → 또래괴롭힘 행동 | .760 | .521 | .094 | 8.055*** |

*** $p<.001$

5.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전체 효과 분해

최종모형의 효과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인기도는 또래괴롭힘에 대해 전체효과가 .229, 직접효과가 .166, 간접효과가 .063로 나타나, 지각된 인기도는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또래괴롭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자기애는 또래괴롭힘 행동에 대해 전체효과 .228, 직접효과 .027, 간접효과 .202로 나타나, 부적응적 자기애는 또래괴롭힘을

$$2) Z = \frac{abc}{\sqrt{a^2b^2SE_c^2 + b^2c^2SE_a^2 + a^2c^2SE_b^2}}$$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해서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매개효과 검증 결과

| 경로 | | | | Z | | | |
|----------|---|----------|---|----------|---------|----------|---------|
| 지각된 인기도 | → | 부적응적 자기애 | → | 도덕적 이탈 | 4.338** | | |
| 부적응적 자기애 | → | 도덕적 이탈 | → | 또래괴롭힘 행동 | 5.134** | | |
| 지각된 인기도 | → | 부적응적 자기애 | → | 도덕적 이탈 | → | 또래괴롭힘 행동 | 3.823** |

**p<.05

<표 4>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체효과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전체효과 |
|----------|----------|------|------|------|
| 지각된 인기도 | 부적응적 자기애 | .276 | - | .276 |
| | 도덕적 이탈 | - | .107 | .107 |
| | 또래괴롭힘 행동 | .166 | .063 | .229 |
| 부적응적 자기애 | 도덕적 이탈 | .387 | - | .387 |
| | 또래괴롭힘 행동 | .027 | .202 | .228 |
| 도덕적 이탈 | 또래괴롭힘 행동 | .521 | - | .521 |

IV.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 2, 3학년년을 대상으로 학급 내 지각된 인기도가 또래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제를 밝히고자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지각된 인기도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김동현, 이규미, 2010; 이승연, 2011; Cillessen & Mayeux, 2004; Cillessen & Rose, 2005) 또는 또래괴롭힘(심희욱, 2008; Caravita & Cillessen, 2012; Caravita et al., 2012; De Bruyn et al., 2010; Dijkstra et al., 2008)의 정적 관련성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또래괴롭힘과 관련하여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성격특성, 인지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가능한 기제를 검증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수준 간에 경미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연구모형 상에서도 지각된 인기도는 또래괴롭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괴롭힘 행동 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가해자들이 다른 참여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각된 인기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Rodkin & Berger, 2008; Thunfors & Cornell, 2008)를 지지하며, 가해자들 중 힘과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 중간이나 약한 집단에 비해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이 훨씬 강했다는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다(Vaillancourt, Hymel, & McDougall, 2003).

그런데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공격적 가해자를 식별하는 것은 교사나 학교폭력개입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Rose et al., 2004). 그 이유는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또래들의 거부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공격적 행동 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도 전략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승연, 2011; Puckett et al., 2008). 그러나 또래집단 내에서 이들이 지닌 강한 영향력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다른 또래들로 하여금 괴롭힘 행동을 모방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지닐 뿐 아니라(Cohen & Prinstein, 2006), 이들이 보이는 공격적 행동에 대한 교사의 비(非)선호가 또래들 사이에서 그들의 지각된 인기도를 더욱 증가시켜 공격적 행동을 강화한다는 연구결과(김동현, 이규미, 2012)를 고려할 때, 반드시 선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지각된 인기도는 부적응적 자기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윤현해 등(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학급 내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또래들의 복종이나 칭찬, 지지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Cillessen & Rose, 2005). 이러한 정적 강화는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자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자기애와 또래괴롭힘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자기애적 성향이 직접적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가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의 관계를 완전매개했다는 윤현해 등(2010)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또래괴롭힘 행동이 아니라 공격성을 측정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또래집단 내 힘의 역학을 반영하는 지각된 인기도라는 개념은 공격성이라는 일반적 특성보다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또래괴롭힘과 개념적으로 더 관련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적응적 자기애는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집단 내에서 중학생의 노출성, 특권의식, 착취적 성향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신의 괴롭힘 행동에 대한 인지적 왜곡 수준을 증가시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착취성향과 또래괴롭힘 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신념이라는 변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Ang 등(2010)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부적응적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이탈은 또래괴롭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괴롭힘으로 가는 직접 경로 중 가장 강력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가해 집단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음을 보고했던 선행연구들(송경희, 이승연, 2010; Caravita & Cillessen 2012; Gini, 2006; Obermann, 2011)과도 일치한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괴롭힘은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느 유형의 공격적 행동보다 훨씬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이기 때문에(Obermann, 2011), 도덕적 이탈은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김경연, 하영희, 2003; 송경희, 이승연 2010; Almeida, Correia, & Marinho, 2010; Caravita & Cillessen 2012; Gini, 2006; Obermann,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도덕적 이탈, 즉,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비인간화하고 피해자나 환경에 비난을 귀인시키는 등의 인지적 왜곡과정이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반복적인 공격행동을 가능하게 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으며, 또래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해서는 도덕적 이탈이라는 이들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본 연구모형에서 지각된 인기도, 부적응적 자기에, 도덕적 이탈의 단순매개효과, 부적응적 자기에, 도덕적 이탈,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단순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했을 뿐 아니라, 지각된 인기도가 부적응적 자기에,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통해 또래괴롭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칭찬, 복종, 사회적 지지 등의 형태로 또래들로부터 상당한 강화를 받으며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고(Rose et al., 2004), 이러한 부적응적 자기에 성향이 자신의 괴롭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왜곡을 증가시켜 또래괴롭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지각된 인기도에서 또래괴롭힘 행동으로의 직접 효과가 부적응적 자기에와 도덕적 이탈을 통한 간접 효과보다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중매개효과의 검증은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정적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기제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효과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들 사이에서 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지닌 청소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각된 인기도가 높다고 해서 모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Peeters, Cillessen, & Scholte, 2010; Walcott, Upton, Bolen & Brown, 2008), 공격적인 아동·청소년 중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또래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지닌 경우가 많으며(Caravita et al., 2009; Cillessen & Rose, 2005; Farmer, Estell, Bishop, O'Neal, & Cairns, 2003), 또래괴롭힘 가해자들의 14%만이 지각된 인기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사실(Villancourt et al., 2003)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공격자의 경우 공격적 행동 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을 함께 보임으로써 식별이 어렵지만(이승연, 2011; Puckett et al., 2008), 이들을 선별하여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둘째, 부적응적 자기애가 직접적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을 늘리지는 않지만, 도덕적 이탈을 통해 괴롭힘 행동의 증가에 기여함이 밝혀졌기 때문에, 또래괴롭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의 부적응적 자기애가 강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 시에 주변 또래들의 강화 행동뿐만 아니라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방관자의 존재조차,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괴롭힘 행동을 묵인하고 이에 복종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된다 (Salmivalli, Voeten, & Poskiparta, 2011; Kärnä, Voeten, Poskiparta, & Salmivalli, 2010). 따라서 주변인들이 더 이상 괴롭힘 행동을 방관하거나 옆에서 부추기고 도와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 학급 내 주변인들의 방어행동을 늘리는 것보다는 가해강화행동 수준을 낮추는 것이 개인의 또래괴롭힘 행동 감소를 더 강력히 예측하였다는 Kärnä, Voeten, Little, Poskiparta, Alanen과 Salmivalli(2011)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집단 내 지각된 인기도가 높으며 부적응적 자기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이 제공되어야 한다. Carlson과 Gjerde(2009)는 아동기에 나타난 자기애적 성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안정적인 속성을 지니며, 특히 청소년기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자기애 총점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초기에 발달된 부적응적 자기애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응적 자기애 성향을 이미 발달시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들이 지닌 왜곡되고 비현실적인, 과장된 자기 상(self-image)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실적이고 정확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개입전략이 유용할 것이다(Ang & Yusof, 2005;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도덕적 이탈이라는 인지적 왜곡 과정을 거치면서 괴롭힘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괴롭힘 행동을 지속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래괴롭힘 행동 자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기저의 인지적 메커니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Ang et al., 2010). 따라서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해행동과 피해자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사고를 재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높은 또래지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성격 및 인지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또래괴롭힘 행동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가해자가 아닌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가 얻는 사회적 보상을 줄일 수 있도록 주변 또래들의 행동을 훈련시키는 것이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가해자의 부적응적 자기애 발달을 저해하고, 도덕적 이탈을 줄여 결국 또래괴롭힘 행동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해자의 성격이나 인

지적 특성과 관련된 지시적 개입(indicated intervention) 뿐 아니라, 또래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개입(universal intervention)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성차를 검증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집단을 통한 모형의 검증에만 초점을 두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해행동에서의 성차를 반영하여 관련변인과 모형 설정을 달리하고, 다집단 분석을 통해 남녀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단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 입증하는 것도 효과적인 개입 전략의 개발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입증된 변인 간 관계가 아동기나 청소년 중기 이후에도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52.
- 김동현, 이규미 (2010). 초등학생의 또래지위와 공격성과의 관계: 선호도, 인기도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2), 175-194.
- 김동현, 이규미 (2012). 초등학생의 사회적 행동특성과 또래지위 관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1-24.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한국아동학회**, 29(5), 79-96.
- 서미정, 김경연 (2006).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주변 또래 유형의 판별변인. **아동학회지**, 27(6), 35-51.
-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심희옥 (2008). 또래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191- 205.
- 오승은, 이승연 (2011). 남녀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2(3), 147-169.
- 윤현해, 김희화, 김경연 (2010). 청소년의 지각된 인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애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1(4), 111-122.
- 이세연,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7), 101-128.
- 이승연 (2011).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53-173.
- Aalsma, M. C., Lapsley, D. K., & Flannery, D. J. (2006). Personal fables, narcissism, and adolescent. *Psychology in the Schools*, 43(4), 481-491.
- Almeida, A., Correia, I., & Marinho, S. (2010). Moral disengagement, normative beliefs of peer group, and attitudes regarding roles in bullying. *Journal of School Violence*, 9(1), 23-36.
- Ang, R. P., Ong, E. Y. L., Lim, J. C. Y., & Lim, E. W. (2010). From narcissistic exploitativeness to bullying behavior: The mediating role of approval-of-aggression beliefs. *Social Development*, 19(4), 721-735.
- Ang, R. P., & Yusof, N.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narcissism, and

- self-esteem in Asian children and adolescents. *Current Psychology*, 24(2), 113-122.
- Baldry, A. C. (2004). The impact of direct and indirect bullying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Italian youngsters. *Aggressive Behavior*, 30(5), 343-355.
- Bandura, A. (1996).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terrains revisited.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27(4), 323-345.
- Bandura, A. (2002).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2), 101-120.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Barry, C. T., Frick, P. J., & Killian, A. L. (2003). The Relationship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to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1), 139-152.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Caldwell, M. S., Rudolph, K. D., Troop-Gordon, W., & Kim, D. Y. (2004). Preview reciprocal influences among relational self-views, social disengagement, and peer stress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4), 1140-1154.
- Caravita, S. C. S., & Cillessen, A. H. N. (2012). Agentic or communal? Associations between interpersonal goals, popularity, and bullying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21(2), 376-395.
- Caravita, S. C. S., Di Blasio, P., & Salmivalli, C. (2009).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empathy and social status on involvement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8(1), 140-163.
- Caravita, S. C. S., Gini, G., & Pozzoli, T. (2012). Main and moderated effects of moral cognition and status on bullying and defending. *Aggressive Behavior*, 38(6), 456-468.
- Carlson, K. S., & Gjerde, P. F. (2009). Preschool personality antecedents of narcissism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 2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4), 570-578.
- Cillessen, A. H. N.,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75(1), 147-163.
- Cillessen, A. H. N., & Rose, A. J. (2005). Understanding popularity in the peer syst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2), 102-105.

- Cohen, G. L., & Prinstein, M. J. (2006). Peer contagion of aggression and health risk behavior among adolescent male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ffects on public conduct and private attitud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0(7), 1257-1267.
- Coie, J., Terry, R., Lenox, K., & Lochman, J. (1995). Childhood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table patterns of adolescen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697-713.
- De Bruyn E. H., Cillessen, A. H. N., & Wissink, I. B. (2010). Associations of peer acceptance and perceived popularity with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4). 543-566.
- Dijkstra, J. K., Lindenberg, S., & Veenstra, R. (2008). Beyond the class norm: Bullying behavior of popular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peer acceptance and rejec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1289-1299.
- Farmer, T. W., Estell, D. B., Bishop, J. L., O'Neal, K. K., & Cairns, B. D. (2003). Rejected bullies or popular leaders? the social relations of aggressive subtypes of rural African American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9(6), 992-1004.
- Gini, G. (2006). Social cognition and moral cognition in bullying: What's wrong? *Aggressive Behavior*, 32(6), 528-539.
- Gorman, A. H., Kim, J., & Schimmelbusch, A. (2002). The attributes adolescents associate with peer popularity and teacher prefer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2), 143-165.
- Hawley, P. H. (2003). Prosocial and coercive configurations of resource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A case for the well-adapted Machiavellian. *Merrill-Palmer Quarterly*, 49(3), 279-309.
- Ialongo, N. S., Vaden-Kiernan, N., & Kellam, S. (1998). Early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Longitudinal relations with adole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10(2), 199-213.
- Kärnä, A., Voeten, M., Little, T. D., Poskiparta, E., Alanen, E., & Salmivalli, C. (2011). Going to scale: A nonrandomized nationwide trial of the KiVa antibullying program for grades 1-9.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9(6), 796-805.
- Kärnä, A., Voeten, M., Poskiparta, E., & Salmivalli, C. (2010). Vulnerable children in varying classroom contexts bystanders' behaviors moderat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on victimiz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6(3), 261-282.
- LaFontana, K. M. & Cillessen, A. H. N. (2010).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priority of

- perceived statu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19(1), 130-147.
- Obermann, M. L. (2011). Moral disengagement in self-reported and peer-nominated school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37(2), 133-144.
- Parkhurst, J. T., & Hopmeyer, A. (1998). Sociometric popularity and peer-perceived popularity: Two distinct dimensions of peer statu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2), 125-144.
- Peeters, M., Cillessen, A. H. N., & Scholte, R. H. J. (2010). Clueless or Powerful? Identifying subtypes of bullie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9), 1041-1052.
- Prinstein, M. J., & Cillessen, A. H. N. (2003). Forms and functions of adolescent peer aggression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peer status. *Merrill-Palmer Quarterly: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9(3), 310-342.
- Puckett, M. B., Aikins, J. W., & Cillessen, A. H. N. (2008). Moder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Aggressive Behavior*, 34(6), 563-576.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igby, K. (2002). Bullying in childhood. In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Rodkin, P. C., & Berger, C. (2008). Who bullies whom? Social status asymmetries by victim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6), 473-485.
- Rodkin, P. C., Farmer, T. W., Pearl, R., & Van A. R. (2000). Heterogeneity of popular boys: Antisocial and prosocial configu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14-24.
- Rose, A. J., Swenson, L. P., & Waller, E. M. (2004).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0(3), 378-387.
- Rubin, K. H., Bukowski, W., Parker, J. G., & Damon, W.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pp. 619-700).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4), 375-393.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n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almivalli, C., & Peets, K. (2009). Pre-adolescents' peer-relational schemas and social goals across relational contexts. *Social Development*, 18(4), 817-832.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almivalli, C., Voeten, M., & Poskiparta, E. (2011). Bystanders matter: Associations between reinforcing, defending, and the frequency of bullying behavior in classro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0(5), 668-676.
- Sandstrom, M. J., & Cillessen, A. H. N. (2006). Likeable versus popular: Distinct implications for adolescent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4), 305-314.
- Sijtsema, J. J., Veenstra, R., Lindenberg, S., & Salmivalli, C. (2009). Empirical test of bullies' status goals: Assessing direct goals, aggression, and prestige. *Aggressive Behavior*, 35(1), 57-67.
- Thunfors, P., & Cornell D. (2008). The popularity of middle school bullies. *Journal of School Violence*, 7(1), 65-82.
- Vaillancourt, T., & Hymel, S., & McDougall, P. (2003). Bullying is power: Implications for school-based inter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19(2), 157-176
- Walcott, C. M., Upton, A., Bolen, L. M., & Brown, M. B. (2008). Associations between peer-perceived status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6), 550-561.

* 논문접수 2012년 10월 29일 / 1차 심사 2012년 11월 30일 / 게재 승인 2012년 12월 18일

* 안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박통합과정 재학 중

* E-mail: odryan@hanmail.net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학교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텍사스 주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에서 학교심리학자로 2004-2006년 근무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분야는 학교폭력, 우울과 자살, 재난 위기개입 등이다.

* E-mail: sleel@ewha.ac.kr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Bullying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on Effects of Maladaptive Narcissism and Moral Disengagement

Ahn, So Hyun*
Lee, Seung Yeon**
Lee, Sol***
An, Ji Hyun****
Ahn, Jea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maladaptive narcissism and moral disengagement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bullying behaviors. For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data of 520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EM analysis reveals that perceived popularity directly influenced bullying behaviors. In addition, perceived popularity increased maladaptive narcissism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moral disengagement. Moral disengagement strongly influenced bullying behavio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ullying behaviors of adolescents with higher peer status can be reduced by addressing their maladaptive narcissism and moral disengag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universal approach which addresses bystanders' reinforcing or passive bystanding behaviors in order to prevent bullies' maladaptive narcissism from developing.

Key words: bullying, perceived popularity, maladaptive narcissism, moral disengagement, middle school students

*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